

항해사·소방관·특전사 등 광주·전남 이색 후보 ‘눈길’

국회의원 출신 손혜원, 체급 한참 낮춰 기초의원 도전 다양한 직군 대거 출사표...최고령 '79세'·최연소 27세

6·3 지방선거에 나선 광주·전남 지역 후보들의 이력이 한층 다양해지면서 지역 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부터 노동운동가, 군 출신, 돌봄노동자, 체육인, 청년 정치 신인까지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앞세운 후보들이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무소속 손혜원(71) 후보는 '체급'을 한참 낮춰 목포시의원 선거(라선거구)에 출마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 후보는 5년 전부터 목포 유달동에 거주하며 지역 문화·관광 분야 활동을 이어왔다. 손 후보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목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이종욱(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항해사와 공무원, 노동운동가 경험을 함께 가진 이색 후보로 꼽힌다. 목포해양대 출신인 이 후보는 30년 가

까운 공직 생활을 거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장과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 오병관(55) 광주 서구의원 후보(나선거구)는 1994년부터 10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외식업에 뛰어들어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경험과 자영업 경험을 지역 생활정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과 안전 분야 경험을 강조하는 후보들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천혁진(31) 전남광주특별시장의원 후보(목포시 제5선거구)는 특전사 부중대장과 유엔 평화유지군 레바논 파병 경험이 있는 예비역 중위다. 천 후

보는 군인 처우 개선과 함께 목포 군부대 유치 필요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황우선(41) 나주시의원 후보(마선거구)는 방재기자 자격증을 보유한 시설점검 노동자 출신이다.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안전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 현장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들도 적지 않다. 진보당 추은주(52) 나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와 교육공무직 조리사 출신으로 현재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나주시회장을 맡고 있다. 같은 당 최경미(59)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의원 후보(광산구 제3선거구)는 직업에 직접 '돌봄노동자'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지장근(40) 순천시의원 후보(바선거구)는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경험을 내세웠고, 기본소득당 편기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원 후보(함평군)는 기간제 교사 출신으로 현재 합평에서 수확학원을 운영 중이다. 체육계 출신 후보들도 있다. 무소속 김흥민(58) 보성군의원 후보(가선거구)는 보성군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체육인이며, 민주당 유영근(43) 북구의원 비례대표 후보 역시 체육관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 후보와 고령 후보 간 세대 대비가 뚜렷하다. 민주당 이재현 순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임인승 광산구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각각 1999년 3월생과 1998년 9월생으로 이번 선거 최연소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두 후보 모두 청년 세대 목소리를 의정대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최고령 후보는 무소속 최신웅(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원 후보(신안군 제2선거구)다. 신안군의회 3대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 후보는 이번까지 모두 10차례 입후보 기록을 세웠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5·18 전야제 참석 한 우원식·정태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태대 민주당 대표 등이 일일 위령탑을 부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재산 최고액 261억...평균 8억3000만원

무소속 김희수 화순군수 후보 최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광주·전남 지역 출마자 가운데 최고 재산 신고자는 260억원대를 신고한 무소속 김희수 화순군수 후보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는 261억1523만원을 신고해 광주·전남 전체 출마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감 후보 가운데서는 이정선 후보가 16억8514만원으로 최고 재산가였고, 광주 광산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중에서는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가 19억884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전체 후보 평균 재산은 8억3183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별 평균 재산은 통합특별시장 후보(마선거구)였다. 7억9296만원, 기초단체장 후보 13억927만원, 교육감 후보 7억4388만원,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7억5994만원이었다. 이현규 기자 gnews1@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 가운데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18억302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2억4776만원, 진보당 이종욱 후보 4억4000만원, 정의당 강은미 후보 2억4390만원 순이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2억285만원으로 통합시장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농업법인 포프리 대표이사 지낸 김 후보는 부동산과 증권, 보석류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 신고액 2억은 85억3395만원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조승준 단원군의원 후보(나선거구), 3위는 78억8997만원을 신고한 민주당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 후보 내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 후보는 AI·디지털, 에너지, 농생명 등 지역 미래 산업과 청년 정책을 연계해 청년 일자리와 산업 전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민형배 “청년이 정책 결정”...청년정책관 도입 공약

청년본부 출범·라이브 타운홀 개최...‘청년결정정부’ 선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1호 청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청년결정정부 선포식과 청년본부 출범식을 열고 청년정책관 도입과 청년 정책 결정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청년본부 특보단과 청년정책

기획위원, 청년 당원 등 100명이 참석해 통합특별시장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민 후보 측은 기존 청년 정책 지원 중심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청년이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에 청년 추천을 받은 남녀 청년정책관을 각각 1명씩 임명해 청년 당사자가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정책의 대상에서 정책의 주체로’를 슬로건으로 진행했으며, 분야별 청년 위원들의 자유 발언에 민 후보가 현장에서 직접 답하는 라이브 타운홀 방식으로 운영됐다. 청년본부는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청년 마음 회복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스키우·귀촌 정착 패키지 △신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 △권역형 만원주택 △신선본부 패키지 △진남·광주 청년정책의회 신설 등 8대 핵심 의제를 제안했다.

민 후보 측은 청년 정책을 복지나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 산업 전략과 연결된 성장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단일 생활·경제권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 정주 기반을 권역별로 연계해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 후보는 AI·디지털, 에너지, 농생명 등 지역 미래 산업과 청년 정책을 연계해 청년 일자리와 산업 전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임문영 “광주서 AI 대전환”...선거사무소 개소

이재명 정부 시 전략 핵심 인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약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군을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임 후보는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주의의 심장 전남광주에서 AI 대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개소식을 개최했다.



임문영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주의의 심장 전남광주에서 AI 대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비롯해 정준호·전진숙·정진욱·안도걸·조인철 국회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후보,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와 당원·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민형배 후보는 “임문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 정책과 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해 온 인물”이라며 “광주가 키워낸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맡았던 역할을 이제 임 후보가 이어가게 됐다”며 “AI와 경제 전략뿐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도 함께 싸우는 사람인 만큼 시민들이 결국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임 후보는 AI 전략가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정책과 경제 전략을 함께 설계해 온 핵심 인물”이라며 “광주에 대한 애정과 책

임을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평가했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와 조경식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원에 나섰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을 ‘광주 사람, 이재명의 전략가, AI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민주주의 정신과 미래산업 경쟁력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정치의 출발도 끝도 결국 주민이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광산과 광주를 떠나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 곁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전략을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광주의 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경쟁률 1.77대 1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전남 광주특별시장 선거구의 경쟁률이 전체 지역구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4곳의 경쟁률은 1.77대 1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체 지역구 평균 1.6대 1보다 다소 높았다. 남구 1은 3명을 뽑는데 더불어민주당 노소영·강원호·임미란 후보와 진보당 김해란 후보 등 4명이 도전해 4곳 중 가장 낮은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일한 4인 선거구인 북구1은 민주당 이숙하·김건안·안평환·박수민, 국민의힘 양해령, 조국혁신당 김상훈, 진보당 이재

광,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가 출마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북구2는 3명을 뽑는데 민주당 허석진·주순일·임종국, 혁신당 선동주, 진보당 윤민호, 무소속 배훈현 후보가 도전장을 내 2대 1을 기록했다. 3명을 뽑는 광산3은 민주당 이영훈·김광란·박필순, 진보당 최희경,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가 도전해 1.7대의 1의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기존 77개 선거구·의원정수 84명에서 71개 선거구·정수 91명(비례대표 선거구 1개·12명 포함)으로 조정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담양 예산 1조·인구 7만 시대 열겠다”

박종원, 선대위 출범...AI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담양군수 후보(사진)가 “예산 1조원 시대와 인구 7만 AI 스마트 그린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담양 미래 100년 구상을 전면에 내 걸었다. 박 후보는 최근 담양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행사에는 이계호 국회의원과 최형식 전남담양군수, 지역 정치권 인사와 당원·군민 등이 참석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규현 의원과 이재중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합류하면서 당내 결속 강화 흐름도 이어졌다. ‘박종원 민심캠프’는 현장 중심 실무형



선대위 체계를 내세웠다. 각계 전문가,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 형태로, 생활 현안과 미래 전략을 동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종원 후보는 “명실 전담양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고 미래 100년을 새로 설계하겠다”며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시대 변화 속에서 담양을 호남 성장축 중심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인구 7만 규모의 AI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